

國際 學校保健會議 參觀記

吳 熙 鏞

서울特別市 學校健康管理所長

第9次 국제 학교 보건 학술대회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School and University Health and Medicine)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다. 일본국립학교 보건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金命鎬 教授, 盧德三 教授, 筆者의 3人을 초청해 주어서 JAL 機便으로 東京에 到看하였다. 空港에는 駐日 韓國 大使館 職員들이 나와 諸般 入國節次의 便宜와 歡迎을 해주어 아무런 不便없이 宿所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 수 있었다. 이 學術大會는 197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日까지 4日間 東京의 “虎의門” 國立教育會館 6層에서 開催되었다.

이 회의는 1972년 파리(佛) 실행위원회에서 추진기로 결정을 본 아시아 학술대회를 일본국립위원회에서 개최할 것을 수락하여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 학교 보건상태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된 關心事를 토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여러 회원국들은 학교 보건에 관한 정보나 경험을 교환하고 학교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지역적인 협조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서로 협조할 사항을 토의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조직위원회 초청에 따라 13개국에서 26名의 代表가 참가했다. 초청국은 볼란서, 인도, 이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타이, 영국, 월남 등이었고 주최국인 日本에서는 77名이 참가했다.

학술대회의 후원회로서는 日本의 文部省, 厚生省, 유네스코 학교보건협회 및 의학협회가 있었다. 학술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대회장인 Dr. y. Nozu는 학교 보건 분야의 국제학술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열렸음을 강조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는 국제 간의 격차없이 世界가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일본의학협회 會長 Dr. T. Takemi는 학교 보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 활동 개발 면에서도 서로 협조하여 이를 향상시키자는 견해를 표시했다. 第1日, 第2日째의 토의 내용은 “保健教育和 學校行政” “學生의 疾病과 그 예방” “學生의 성장과 發育” 등이었으며 第3日의 日程은 시찰여행으로 八千代市에 있는 勝田臺, 國民學校 千葉 Medical Center와 千葉市 Community Center를 방문하였다. 第4日 午前에는 각 분과위원장이 종합한 보고서를 土臺로 종합토의가 進行되었는데 아시아 지역에 있어 앞으로 협력할 계획을 토의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採擇하였다. 午後에는 폐회식이 있었는데 모든 참가자들은 본 회의를 추진하는데 노력한 일본위원회를 치하하고 뒤이어 여러 나라에서 제가품 가져온 선물 交換이 있었다.

會議內容을 日程順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날의 토의 내용은 “保健教育和 學校行政”으로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時間 동안 進行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Dr.H. Uemura 와 Dr. S.Uchida

가 사회를 보고 일본인 Dr. J. Hosokawa가 “日本에서의 保健教育”이라는 제목으로 發表를 하였다. 이란 대표는 이 발표에 대해 ①日本에서의 성교육의 상황 ②日本 내에서의 醫師數의 充足度와 學校 保健教育에 대한 그들의 협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Dr. Hosokawa는 「옛날에는 性教育은 科學의 一分野 또는 生理學의 一分野였으나 現在는 獨自의인 學問으로 取扱된다」고 說明하고 그는 日本校醫協會와 日本醫學協會가 學校 保健教育에 매우 협조적이며 모든 學校에는 學校의 保健行政의 責任을 맡는 적어도 1名 以上の 指定 校醫를 채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양호교사들이 性教育에 대한 教育지침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에 이 기회에 東京醫大의 船川 教授에게 부탁하여 月刊誌인 각종 學校保健誌를 기증 받았고 指導教材도 送付해 주기로 약속 받았다.

각급 學校에서의 校醫 위축이 이름 뿐인 우리나라 實情에서는 學校 保健管理는 매우 어려운 處地에 있지만 醫師들의 봉사 의 뜻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나는 學生들을 돌보는데 협조해 주면 해결되리라 생각도 해 봤다.

그 외에 外國人들의 ①學校 保健 정보제도 ②지역사회 보건과 學校 保健과의 관계, 大學에서의 保健教育의 상황과 問題點 등이 發表되었다.

둘째날인 10월 30일에는 “學生의 질병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日本人 Dr. A. Eguchi가 “學校 적령兒童에 있어서의 疾病管理”를 發表했고 다음이 이란 代表 正형外科 醫師 Dr. E. Shahrestani의 “學校兒童에게 흔한 傷病에 대한 報告”를 듣고 日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骨折 發生이 이란에서는 어떻게 되고 질문했었다.

세 번째로 大韓民國의 Dr. H. Y. OH(筆者)의 “學校 兒童의 寄生虫 감염에 대한 疫學的인 연구”의 발표로 약 30分間에 40校 以上の Slides를 가지고 우리 學校健康管理所의 주요 업무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過去 10년간의 寄生虫 管理상황 특히, ①각급 學校 學生들의 寄生虫 감염율 ②疫學的인 社會人口 經濟的 요소들과 기생충 감염율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③身長 體重 등의 신체적 지수와 기생충 감염율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④영양상태와 기생충 감염율과의 관계 ⑤寄生虫卵의 檢鏡

法에 대한 檢討 ⑥檢査物 〔조작법에 관한 검토 ⑦구충제의 선택에 관한 임상실험 ⑧學校健康管理所의 10년간의 기생충 관리에 대한 효과 등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우리 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本所가 160萬名의 서울 學生을 대상으로 보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日本人 船川 教授는 지금 한국에서의 기생충 문제는 10年前의 日本의 상황과 같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學校健康管理所가 있다는 것에 敬意를 표하면서 아주 기생충 없는 나라(日本은 약 0.2%로 表示함)를 지향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자기네들도 적극 협력해 주겠다는 격려도 해 주었다.

또한 기생충에 對한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는 등 많은 關心을 가져주었고 말레이시아 대표 醫師는 한국에는 고려인삼이 유명하고 여러 가지 藥効가 많은 것 같은데 기생충 구제에 대한 검토는 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었다.

네째로 인도 대표인 Dr. P. Lakshminarayana의 “마드라스市 學校 兒童에 있어서의 기생충 감염”에 대한 發表가 있었다.

추가 발표로 월남 의사의 “學校 保健에 대한 現在 狀況”과 타이의 사의 “學校 保健教育에 關하여 최면제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 필리핀 대표의 “學生에 대한 기능적 保健活動의 現在 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다.

둘째날 午後의 분과 토의에서는 “學校 兒童의 성장과 발육”에 대한 각종 연제 발표가 있었다. 즉, ①學校 兒童의 신체성장(日本) ②이란에서의 무료 學校 保健 사업과 무료 공중보건 사업을 제공함에 關連되는 문제점 ③南印度 수도인 마드라스市에서의 사회적 경제환경이 낮은 학생들의 신체발육과 보건문제 ④大學 保健 및 의학에서 積증하는 의료수요와 그에 따르는 諸問題點(이란) ⑤日本에서의 소위 成長加速에 關하여 ⑥유럽 學校 保健의 趨勢(영국) ⑦學校 保健을 위한 學校 요원의 訓練(이란) 등의 연제로 發表가 끝났다.

10월 31일에는 아침부터 八千代市에 있는 勝田臺 國民學校 學生의 體力管理, 營養管理, 保健管理를 위한 시설과 계획 및 동 實施상황 등을 見學하고, 各種 놀이機具(約 30種)을 運動場에

설치하여 反覆 訓練 등으로 學生의 身體膽力, 精神發達 등을 도모하고 Central Supply를 通해 실시하는 영양가 높은 學校 給食 學校 養護室에 設置되어 있는 學生을 위한 간이 목욕실을 구경하고 응급처치 보건조사 등으로 學生 各者의 보건지도를 하고 있는 것 등을 보았다. 이 學校의 學生들이 우리 一行을 환영해 주었는데 우리 눈에 비친 學生들의 健康美와 좋은 영양상태 등이 나를 서글프게 했고 좀 부러울 정도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나라 애들과 비교가 되어 마음 아프기도 했다.

다음에 千葉市에 있는 Medical Center와 Community Center를 시찰 했다.

이 지역사회센터는 千葉市教育委員會에서는 지역市民들의 投資協力을 얻어 총 54億圓의 64%를 거출하여 巨大한 社會福祉 Center를 만들고 地域市民들의 生活를 아주 便利하게 이끌어 줄 뿐 아니라 各種 福祉事業을 하고 있는 理想的인 곳이었다.

이 地域의인 厚生福祉事業은 福祉社會의 建設이 國家와 市民의 共同責任이라는 점을 雄辯으로 말해 주고 있으며 設置된 民間資本은 10年間の 償還期間을 두고 還拂해 주는 것이라고 說明해 주었다.

이 建物 內에는 千葉市教育委員會를 비롯해서 Super-Market, 心身鍛練을 위한 各種 運動施設, Swimming pool, 禮法室, 身體의 異狀 有無를 診斷하는 各種 檢査(X-Ray, E.K.G, E.E.G.)를 Computer로 처리되어 그 結果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모든 結果가 이것을 판단해서 근처에 있는 Medical Center로 보내어 그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게끔 되어 있었다. 이들의 치료비와 진찰비는 計上되기는 하지만 個人이 支拂하는 것은 아니며 年齡에 따라 厚生省, 文部省, 勞働省 등에 計上된 豫算으로 支拂된다고 했다. 이곳을 참

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러움을 禁치 못했다.

筆者는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는 學生과 敎職員을 위하여 운영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도 國家豫算에만 依存하지 말고 地域民과 民間團體 등에서도 운영의 一翼을 擔當하는 것이 制度化 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끝으로 알려드릴 것은 國際學校保健會議는 過去 16年間 존속했으나 아시아에서는 日本 말레이지아 월남공화국 중화민국만이 1974년까지 가입 했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가입과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며 또 이 회의에서 學校保健사업의 개발을 支援하고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政治性이나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체로 아시아 지역의 학교연맹 구성체를 조직하자는 건의를 했으며 이 구성체를 학교 보건 아시아 연맹이라고 칭하며 취지는 다음과 같이 하자고 合議했다.

① 아시아 지역에서 學校 保健 요원의 정기적 대화를 갖는다.

② 學校 兒童들의 一般保健 수준을 상승 시키는데 협조한다.

③ 研究活動과 전문교육을 위한 科學的 및 專門의 조직을 구성하는데 협조한다.

④ 學生들의 健康과 복지에 관련된 여론을 선도하는데 가능한 忠告와 협조를 한다.

⑤ 學生들의 健康과 복지향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율을 상호 이해하게 한다.

⑥ 學生들의 成長과 발육에 있어서 체육이나 육체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응용스포츠의학의 필요성을 건의한다.

⑦ 學術大會에서는 民間團體의 역할과 역량을 실감하기 때문에 効果的인 學校 保健事業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고 연맹과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 자원을 함께 수집하기를 건의한다는 상황들을 결의한 후에 散會했다.